

북한 노동 일상의 세계와 접근방법

차문석(통일교육원 교수)

1. 서론: ‘새로운 세계’를 포착하기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를 통틀어 근대 사회에 들어와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근대에 국가라는 형태로 관리되는 노동은 일국의 생산과 생산성을 담지하는 필수적인 개념이자 실천이 되었다. 급기야 노동은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되었고 특히 20세기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그것이 더욱 극화되었다. 이는 소렌슨(Jay B. Sorenson)의 연구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강제했던 노동 윤리를 칼뱅주의(Calvinism)에 비유했던 것이다.¹⁾ 사회주의 국가들의 헌법과 각종 담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소련 1918년 헌법 제18조)라는 경구는 사도 바울(Paul)

* 본 논문을 심사한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성심으로 고민하여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순전히 필자의 능력으로 인해 불가능한 작업이 있었음을 양해 구한다.

1) Sorenson, Jay B., *The Life and Death of Soviet Trade Unionism 1917~1928*(New York: Atherton Press, 1969), pp.129~165.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²⁾

노동은 이렇듯 국가와 결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도 국가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노동이, 그리고 그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국가의 공식 담론에서 항상 칭송되고 미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노동이 찬양된다. 시장적 기제와 같은 중간 매개를 관통함 없이 노동은 국가와 직접 대면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이 실행되는 공간에 어김없이 국가가 개입한다. 국가는 실제로 유일하고 합법적인 고용주일 뿐 아니라, 이윤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주도적 요인이 아닌 사회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제를 의식적으로 도입해야 것도 국가이다.³⁾

이런 면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행해지는 ‘노동’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가 대단히 비판적인 성격을 갖는 경향이 있다. 공적인 공간에서 공적 담론에 부합해서 행해지는 매우 처절한 노동에 대한 묘사는 노동을 강제하는 국가의 욕망을 드러내며, 반대로 이를 거스르는 은폐된 저항의 노동에 대한 묘사 또한 노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다. 그뿐 아니다. 일상적인 노동과 생활에 대한 묘사는 일상성을 생활에 결부시킴으로써 공적인 성격에 대립되거나 마찰하는 영역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어찌면 노동 그 자체가 초역사적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연구에서 특이하게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거기에 덧붙여 노동 연구는 지배자가 아니라 피지배자인 노동자를 필연적으로 결부시키기 때문에 비판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특히 노동 일상에

2) “데살로니가후서,” 『신약성서』, 제3장 10절.

3) Siegelbaum, Lewis H., *Stakbanovism and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in the USSR, 1935 ~ 1941*(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8.

대한 연구는 불가피하게도 이러한 노동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일상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북한의 노동 일상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이다. 여기서 ‘새로움’이란 그 일상의 세계가 새로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해왔던 세계이지만 연구자에 의해 새로이 포착되는 세계라는 의미이다. 어찌면 이 ‘새로운 세계’로 인하여 지금까지 설파되어 왔던 북한적 현상들이 일그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진면목을 더욱 입체화하고 보완하는 기능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 양자 모두 북한 노동 일상 연구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의 북한 노동(과 노동생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데다가 그나마도 주로 공적인 담론에 나타난 노동을 분석하는 데 치중해왔던 측면이 있어서 ‘노동’을 규정하는 공식적 구조와 제도, 그것들의 변화가 주된 연구 영역이었다. 구조와 행위, 혹은 구조와 주체의 해묵은 대립 구도를 떠나서 노동 자체가 구성되고 실행되는 (노동) 일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구조와 제도가 노동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로부터 노동 일상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구조와 제도가 노동 일상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를 강요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들이 제공될 것이다.

이 글은 노동자가 ‘노동력’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노동 일상을 어떻게 꾸리고 살아갔는가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노동자를 생산 요소의 일부분으로서 환원될 수 없는 주체적 행위자로 파악하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들이 나름의 능동성으로 조직하고 만들어온 ‘노동과 일상’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고 북한의 노동 일상을 새로이 조명하고자 한다.

2. 사회주의와 노동 일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시민사회의 영역에 포함되어 국가와 구별되는 사적(私的)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20세기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이 실행되는 생산의 장소(그리고 물리적 설비)는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 일상을 분석할 때, 일상생활이란 것은 원래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인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공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공적 영역의 일부로서 배제할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의 세계가 결과적으로 누락되게 된다. 결국, 공식적인 노동의 세계 내에서 펼쳐지는 노동 일상들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되고, 사회주의에서 ‘일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된다.

사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 일상은 공적인 영역으로 강제되고 공적인 담론으로 치장되어 사적인 성격이 의식적으로 배제되거나 은폐되어왔지만, 노동 일상 그 자체는 공적인 영역에서조차 완전히 포섭될 수 없다. 노동하는 주체가 완벽하게 포섭되는 체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에서 노동 일상은 공적 구조의 실제 작동 메커니즘과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국가적 상징과 조국과 민족 같은 국가주의적 담론에 감염되어 노동을 향해 쇄도해가는 ‘붉은 깃발을 든’ 영웅적 노동 그리고 이러한 영웅적 노동과는 달리, 그리고 국가의 강제된 노동에도 죽거나 꺾이지 않고 연연히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은폐된 저항의’ 노동은 결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간과 시간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노동 일상은 그것을 모두 포괄한다. 오히려 구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권력의 담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행태(行態)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이러한 동일시 감정은 매우 복잡 미묘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의 일상’이란 무엇인가? 노동의 일상은 기본적으로 그 일상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사유와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유와 행위는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전체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 즉,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어쩌면 노동 그 자체가 하나의 일상적 활동이다. 근대에서만 아니라 근대 이전의 인류의 삶에서 일상생활을 지배했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은 노동의 수행이었으며 이 노동의 수행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나머지 활동 형태들이 배열되었다.

노동 일상을 연구하는 것은 그러한 노동 일상을 생산하는 사회를 최종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 일상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그 이유를 해리 하르투니언(H. Harootunian)의 근대와 일상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차용하면, 오히려 일상이 지배에 균열을 내는 무수한 차이들의 장이며 잠재성들이 흘러넘치는 장이기 때문이다. 하르투니언에 따르면, “일상은 자본주의적 지배가 속속들이 관철되는 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에 균열을 내는 무수한 차이들의 장이요, 항상 유령적 잠재성들이 흘러넘치는 장으로 의미화되고 있다.”⁴⁾

그렇다면 사회주의와 노동 일상은 어떤 맥락 속에서 상호 연계되고 있는가?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더구나 노동동원 체제가 국가적이고 체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회에서 노동 일상이란 없

4) 하르투니언, 해리, 『역사의 요동』(서울: 휴머니스트, 2006), 325쪽.

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소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로 작용했든지, 아니면 아예 결과적으로 ‘문화혁명(cultural revolution)’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문화에는 노동의 새로운 세계(새로운 노동 질서와 문화)의 기획도 포함되어 있다. 메이어(A. G. Meyer)는 “사회주의 혁명은 문화의 충돌을 수반한다. …… 레닌을 필두로 그들의 이름으로 혁명을 했던 사람들은 구래의 문화를 대체하고자 했던 새로운 문화의 의식적인 전사가 되었다”⁵⁾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문화혁명은 노동의 일상, 일상 노동, 그리고 노동 문화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다. 혁명 이후 이러한 ‘문화적 혁신’의 주체는 대중이나 인민이 아니라 엘리트(elite)가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혁명은 대중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이고 장기지속적인 노동 일상에 대한 공습을 의미했다. 어떤 의미에서 ‘공산주의 혁명은 문화들 간의 전쟁’⁶⁾인 것이다. 메이어에 비해 다소 강도는 약하지만 르페브르(H. Lefebvre)는 “혁명은 그 자체로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일상을 해체하고 변형시키기 위해 우선 일상을 거부하고 일상을 재구성한다. …… 그 이후 혁명은 그 자체가 일상성이 되면서, 다시 말해서 제도, 관료주의, 계획 경제, 생산성 합리화 등이 되면서 이러한 희망을 배반했다”⁷⁾라고 보았다.

하지만 대중들은 ‘해방을 위한’ 노동이라는 권력의 노동 담론에 ‘은

5) Meyer, Alfred G., “Cultural Revolution,”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XVI, No.1&2(Spring/Summer, 1983), pp.5~8.

6) 위의 글 참조.

7) 르페브르, 앙리,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재환 외 엮음, 『일상생활의 사회학』(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4), 78쪽.

폐된 저항'으로 대항해왔다. 이로써 볼셰비키가 부수지 못할 노동자들의 요새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노동 일상'일 것이다. 예를 들면 일제시기에 공장 최고 권력자의 명칭이 '지배인'이었는데, 해방 이후 북한에서는 '지배인', '기사장', '부장'(가령, '공무동력 부장' 등)이라는 명칭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왔다. 지배인이라는 명칭과 함께, 지배인으로부터 명령받는 노동 또한 노동자들의 일상에서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해방, 혁명, 권력의 스펙터클한 정치적 시간 아래로 조용히 흐르는 시간과 더불어 노동 일상은 일제 시기로부터 중단되지 않고 흘러나왔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김광익은 마오쩌둥의 혁명 정권하에서 은폐되거나 억압되어 있던 중국 인민들의 민간 문화들이 마오쩌둥 사후에 부흥하거나 새로운 장르로 발명되면서 국가가 생산하는 공식문화와 긴장과 충돌을 일으키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⁸⁾ 혁명에 가려졌던 노동 일상과 노동 문화도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왕(Wang)은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데, 인민들의 전통과 문화가 혁명 과정 속에서 공식 권력에 부정당했지만 즐기차게 유지되어왔는데, 그것은 의도적 저항이며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았다.⁹⁾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노동 일상이라는 것은 잘 포착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자료상의 한계와 발견하려는 노력의 지나친 부재도 여기에 기여했겠지만, 노동을 행하는 사람 그 자체가 은폐하거나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은폐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일

8) 김광익, “중국연구를 위한 인류학적 패러다임 시론,” 『국제지역연구』, 11권 3호 (2002), 31쪽.

9) Wang, Mingming, *Flowers of the State, Gardens of the People*(Ph.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1992).

것이다.

새로운 노동 일상의 창조를 수반했던 혁명 이후 그 새로운 노동 일상은 공식적인 담론에서 자찬(自讚)하는 노동 일상이겠고, 거기에 저항하는 일상적 노동 현실이 여전히 존재한다. 즉, 혁명과 혁명 체제, 산업화와 경제 담론, 도시화와 동원 체제와 같은 거시적 구조적인 것들에 의해 은폐되거나 밀려나온 노동의 일상들을 파헤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연구사(研究史)적으로 말한다면, 산업화 연구, 수령제 연구 등의 기존의 북한에 대한 거시 주제의 연구 과정에서 (북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북한 역사의 많은 측면들이 억압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같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은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거대한 사회적 구조적 변동과 그 과정을 노동자의 방식으로 경험하고 또 이용했다.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일상 활동을 통해 제도의 재생산과 변화에 개입한 것이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재규정하게 된다.¹⁰⁾ 이는 이들이 객체이자 동시에 주체임을 보여준다.¹¹⁾

3. 북한에서의 노동 개념과 일상

여기서는 북한에서 노동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북한에서 노동 일상이 얼마나 공식적인 노동을 비껴가 횡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공식적인

10) 김진균·정근식,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서울: 문화과학사, 1997), 15쪽.

11) 뤼트케, 알프, 『일상사란 무엇인가』(서울: 청년사, 2002), 21쪽.

노동세계가 현실의 일상 노동과 얼마나 간극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노동세계 자체의 일상이 어떤 구조와 담론 속에 내재해 있는지도 부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과 같은 집단주의에 토대를 둔 체제에서는 기존의 정치적 기제가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노동자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통제한다. 개인의 영역은 공식 사상과 이념에서 소거되거나 밀려나고 공식 담론이 개인을 포획한다. 나아가 ‘노동’ 또한 사적인 성격이 사상(捨象)되거나 은폐되고 공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묘사되고 있다.

북한에서 공식적인 노동 개념은 바로 ‘공공성’ 혹은 ‘이타성’에 기반을 둔 노동 개념이다. 북한에서 노동은 공산주의적 태도와 관련되어 설명된다.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란, “로동을 즐기고 로동을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로동에서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중요한 품성”¹²⁾으로 정리한다. 김일성도 “로동을 사랑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공동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가장 큰 영예”¹³⁾라고 정리한다. 결국 북한에서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 신화화된다. 노동이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며, 모든 주민의 지위는 노동에 대한 성실성에 의해 규정되고 “노동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영웅적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노동에 둘 것을 강조한다. 1917년 혁명 이후 소련에서 발흥한 칼뱅주의적 사회주

12) 사회과학출판사 위음,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334쪽.

13)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김일성 저작집(제2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34~35쪽.

의 노동이 북한에도 거룩하게 횡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노동을 정의하는 이면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생산성’의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노동 개념을 통해서 순종적이고 근면하게 일하는 노동자를 생산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졌다. ‘노동을 기피하는 습벽’, ‘반항 의식’, ‘부랑성’, ‘게으름’은 공산주의적 인간형과 양립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에 걸맞지 않은 모든 인간적 욕구들이 부정적으로 취급된다. 이는 특히 산업화시기 북한의 영웅 모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농촌 출신 노동자들의 산업적 리듬에 대한 부적응, 새로운 산업 정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당시 북한 정권의 주요한 정책 문제였다는 것을 반영한다. 사실 사회주의에서 흔히 창출되었던 노동 영웅은 사회주의적 노동을 각인시키기 위한 노동 교육적인 존재로서 나타났다.

북한에서 노동 영웅 칭호를 받는다는 것은 공동체와 집단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인간의 전범이 되는 것이며, 이들은 모델이 되어 ‘태만한 자, 게으른 자, 그리하여 이기적인 인간’을 분쇄하는 정치 도덕적 존재로 승화된다. 사실상 이 영웅들은 북한 체제를 위한 규율화 장치라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 인형’인 셈이다. 즉, 공장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 결근이나 노동유동을 빈번히 하여 생산성을 저해하는 자들과 같은 생산성의 이탈자들을 병리적 이상자로 치환시켜 이들을 치유하는 정치 의학적 십자군들인 셈이다. 권력은 영웅을 각 공장 및 기업소에 배치해 노동자들에게서 새로운 노동 습속을 창출하고 그 규율을 내면화시키게 한다. 결국 북한에서의 ‘영웅’은 노동의 신성화와 결부되어 있다.¹⁴⁾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일상’은 영웅적 노동과 노동

14) 차문석, “북한의 노동 영웅에 대한 연구,” 『북한의 사회』(서울: 경인문화사, 2006), 271쪽.

영웅도 관통하는데, 그리하여 영웅은 일상(연구)을 통해 해체되어 폭로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 노동은 일종의 ‘전투’로서 묘사된다. 물론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절정기를 구가하던 소련으로부터 복제한 담론이다.¹⁵⁾ 즉, 국가계획은 ‘전략 계획’, 성·관리국·도경제위원회 수준의 계획은 ‘작전 계획’, 그리고 공장·기업소·직장에서의 실제 생산계획은 ‘전투 계획’이라고 불렀다. 공장에서의 생산은 ‘전투’, 지배인은 ‘지휘관’, 공장당위원회는 기업소의 ‘최고지도부’ 등으로 은유했다.¹⁶⁾ 또한 ‘20일 전투’, ‘50일 전투’ 등의 ‘돌격전’, 돌격전을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된 작업반은 ‘돌격대’라는 표현도 사용되었다.

이리하여 이 사회에서는 병사(兵士)와 사민(私民)이 중첩된다. 사민이 군인이고 군인이 사민이 된다. “병사는 전투를 위하여 산다. 그러니 이것이 사민과 다른 점이라는 것일까…… 사민들도 일을 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전투라고 부른다. ‘70일 전투’, ‘100일 전투’, ‘200일 전투’…….”¹⁷⁾ 전투에서 병사들에게 애국주의와 조국애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 또한 전투이므로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주의적 노동이 강제된다. 나아가 조국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15) 소련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직후라는 점, 중국의 경우 한국전쟁의 영향 때문에 군사적 레토릭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 북한의 경우 한국전쟁의 영향과 만주국의 등장에 따라 항일유격대 정신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레토릭을 사용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서울: 박종철출판사, 2001).

16) 김일성, “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61년 12월 1일), 『사회주의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17~37쪽.

17) 최완규·노귀남, “북한 주민의 사적 욕망,”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2008), 49쪽.

바치듯이 노동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

이러한 거대한 노동 담론, 노동에 대한 권력 담론이 갖는 총체성에 균열을 가하는 것이 ‘노동 일상’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 일상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총체성에 균열을 가하여 새로운 총체성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4. 북한 노동 일상의 접근방법

적어도 방법론과 관련해서 언급할 때, ‘노동 일상에 대한 연구’ 그 자체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우리가 북한의 노동 일상을 연구한다고 할 때, 노동 일상은 연구 대상 혹은 소재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방법을 의미하는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제기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동 일상 연구는 노동 일상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자 소재이면서도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방법으로서의 노동 일상 연구는 반복되고 무의식적으로 체화된 것을 잘라낸 단면 속에서 구조나 제도, 또는 지배 정책을 재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즉, 일상이라는 미시적 현상 속에 깃들여 있는 문제를 포착해가는 것이 방법으로서의 일상 연구가 갖는 문제 틀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서의 노동 일상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일상적인 담론이나 사적 공간에 대한 내러티브가 거의 공개되거나 공간(公刊)되지 않는

18) 공제욱·정근식,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서울: 문화과학사, 2006), 18쪽.

‘북한’에서의 노동 일상은 연구자들을 괴롭히는 난제이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면 어디에나 일상은 있다’는 간단한 언술에 귀를 기울이면서 난제에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일상에 다가가야 한다.

이하에서는 다소간 생소하고 생경한 북한의 노동 일상에 접근하기 위한 ‘기법’과 접근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거대 구조나 정치 경제체제에 대한 접근과는 달리 노동 일상 연구는 섬세하고 작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작은 그물코’의 그물을 던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기법’이란 ‘작은 그물코를 만드는 법’에 해당하며, 접근방법이란 ‘작은 그물코의 그물을 어떻게 던질 것인가’에 해당한다.

1) 노동 일상에 접근하는 ‘기법’

어떻게 ‘작은 그물코의 그물’을 만들 것인가?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일상적인 것들을 기술하지 않은 문헌에서 일상을 발견해낼 수 있는 기법이 있으며, 탈북자가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로 일상을 구성하는 기법(구술 분석 기법)이 있을 것이다.

(1) 문헌 분석을 통한 기법

주지하듯이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분석 기법은 ‘문헌 분석을 통한 기법’일 것이다. 우선 ‘1차 자료’의 분석이 있을 수 있다. 개인 문서와 공식 문서 모두 수집과 분석의 대상이 된다. 개인 문서에는 노동자 수기, 일기, 편지, 자서전, 참회록, 개인의 작문이나 수필, 수상, 사진 등이 포함될 것이다. 노동자 수기에는 노동자들에 의해 쓰인 ‘노

동 수기'와 『천리마작업반장의 수기』 같은 ‘노력 영웅’들의 자필 수기가 있다. 일기로서는 중국의 종합영웅 레이펑(雷鋒)의 일기인 『레이펑 일기』가 있다.¹⁹⁾ 하지만 길확실과 레이펑 같은 영웅들의 수기와 일기를 통해서 분석할 경우, 이 일기와 수기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일상들은 권력에 의해서 대단히 웅장하고 스펙터클화되어 있으며 필자 스스로 자기검열을 가한 글들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²⁰⁾ 또한 노동자 수기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지배적으로 의미화되고 있는 어휘나 표현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것이 어떤 사실을 함의하는지를 밝히며, 역사적으로 의미 생산의 공간을 지배했던 언어 형태가 무엇인지를 도출함으로써 글로 쓰인 자료가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노동자들의 수기와 메모를 통해서 분석을 시도했던 연구로는 코트킨(S. Kotkin)의 『마그네틱 마운틴: 문명으로서의 스탈린주의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1995)과 호프만(D. Hoffman)의 『페전트 메트로폴리스(Peasant Metropolis: Social Identities in Moscow 1920~1941)』(1994) 등이 있다.²¹⁾ 코트킨은 우랄(Ural)의 마그니토고르스크(Magnitogorsk) 철강공장에서의 노동 일상을, 호프만은 모스크바 공장의 농촌 출신 노동자들의 노동 일상을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게 묘사했다. 특히 호프만은 이 책에서 각 장을 시작할 때 당시 노동자들

19) 길확실, 『천리마작업반장의 수기』(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1); 진광생·최성만 옮김, 『뇌봉』(서울: 실천문화사, 1997).

20) 차문석, “레이펑, 길확실: 마오쩌둥, 김일성 체제가 만들어낸 영웅들,” 『대중독재의 영웅만들기』(서울: 휴머니스트, 2005)를 참조.

21) Kotkin, S.,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Hoffmann, David, *Peasant Metropolis: Social Identities in Moscow 1920~1941*(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 영화 같은 픽션(fiction) 자료가 있다. 이러한 픽션 자료들은 비록 화자(話者)나 필자(筆者)가 발언하고 관찰하는 공간이 제약될지라도 사적 존재들(노동자들)과 그들의 일상(노동 일상)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는 작품 속의 화자보다 더 많이 보는 독자와 청자의 눈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²²⁾ 북한에서 공간되는 소설을 중심으로 일상을 접근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최완규·노귀남의 “북한 주민의 사적 욕망”(2008)이다. 이 연구는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미시적으로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개인의 내면세계를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필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내면세계를 김정일 시대의 북한 소설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있다.²³⁾

한편 문헌 분석 기법에는 ‘텍스트 구조 분석’이라는 것이 있다. 텍스트 구조 분석은 전체 이야기 혹은 담론이 가지는 기능적·형태적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블라지미르 프롤로프(Vladimir Propp)의 연구 『러시아민담 연구』를 들 수 있다.²⁴⁾ 프롤로프는 민담 분석에서 민담의 구성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능(function)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 기능이란 핵심적인 혹은 기본적인 이야기 단위(narrative unit)를 의미한다. 민담은 이 기능의 그물망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개별 기능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 민담이 언술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민담, 신화, 의례, 신앙, 언어, 인간 사고뿐 아니라 각 지방의 생업, 기후, 경제 등을 검토하고 화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위

22) 최완규·노귀남, “북한주민의 사적 욕망,” 44쪽.

23) 위의 글.

24) 프롤로프, 블라지미르, 『러시아민담연구』, 이종진 옮김(서울: 한국외국어대출판부, 2005).

치, 직업, 그 사회에서 이야기가 기능하는 역할 등을 검토했다.

또한 그레마스(A. J. Greimas)의 행위자 모델도 이야기 구조 분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²⁵⁾ 그레마스는 ㅼ로ㅼ의 분석을 발전시킨 것으로, 행위자 모델은 담론 전체에 등장하는 행위자들의 역할이나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전체 담론이 지향하는 중심 행위나 중심 역할을 밝혀주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 타 분야에서 연구된 이렇게 많은 문헌 분석 기법들을 복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면 대단히 유용할 것이다.

(2) 구술 분석을 통한 기법

문헌 분석과는 달리 구술 분석 기법은 역사적 기록이 없는 이른바 ‘보통 사람들’의 역사를 기술하고 연구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법이며 특히 일상 연구에 대단히 중요하다. 공식화된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즉 유명한 사람들이나 지도자, 지배자의 이야기 속에서 담아 낼 수 없는 삶과 이야기들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이다.²⁶⁾

또한 구술 분석 기법은 과거의 역사나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드러내게 하는 기법이자, 특히 일상생활을 담아내는 기법으로도 적절하다. 가령 라오웨이(老威)가 중국의 하층민[中國底層]의 구술을 정리한 책 『저 낮은 중국(中國底層訪談錄)』은 개혁기 중국 사회의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사람 16명의 이야기를 그들의 언어

25)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그레마스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 연구』(서울: 고려대출판부, 2002).

26) 문옥표, “문화연구 방법론 모색: 구술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구술사와 우리시대의 인류학』, 문화인류학회 제6차 워크숍 발표논문집(1999).

로 그리고 그들의 세계 속에서 발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에게는 ‘낯설었던 중국’을 대면시킨다.²⁷⁾

지금까지 북한 연구는 북한의 정치 변화에 따른 정치사연구나 경제 사회적 구조와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왔기 때문에 해당 시기의 노동자의 일상생활을 담아낼 수가 없었다. 에릭 홉스봄(E. Hobsbawm)에 의하면, 진정한 역사는 사회역사(history of society)여야 하며 이는 역사의 하위 부분 또는 특수 분야로서의 사회사(social history)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구술 분석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동자들이 어떠한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노동에 임했으며 정치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의 측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게 해준다.

폴 톰슨(P. Thompson)의 『과거의 목소리』와 알레산드로 포르텔리(A. Porteli)의 『루이지 트라스투리의 죽음』은 구술 분석을 통해서 정사(正史)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들의 삶을 복원해낼 수 있는 기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²⁸⁾

물론 구술 기법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문제는 ‘객관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한계는 모리스 할브왁스(Maurice Halbwachs)가 중심 개념으로 사용했던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y)’ 혹은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의 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 사람의 구술을 서로 비교하거나, 공동으로 한 사건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끌어내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기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27) 라오웨이, 『저 낮은 중국』, 이향중 옮김(서울: 이가서, 2004).

28) Thompson, Paul,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ortelli, Alessandro, *The Death of Luigi Trastulli and Other Stories*(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을 참조

29) Halbwachs, Maurice, *The Collective Memory*(New York: Harper Books, 1980).

인터뷰를 광의의 구술로 간주할 수 있다면, 사회주의권의 작업장 연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던 두 개의 획기적인 연구가 존재한다. 하나는 중국 공장에 대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소련 공장에 대한 연구이다. 두 개의 연구는 각각 탈중자(脫中者: 중국을 탈출한 사람들과) 탈소자(脫蘇者: 소련을 탈출한 사람들과)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되었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먼저 중국에서 공장 내의 일상적인 권력 관계,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후견 - 피후견 관계를 밝히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한 연구는 바로 앤드류 월더(A. Walder)의 『공산주의적 신전통주의(Communist Neo-Traditionalism)』(1986)이다.³⁰⁾ 그리고 소련의 공장에서 공식적인 노동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비공식적인 저항과 이윤배반 상황들을 연구한 조셉 베를리너(J. S. Berliner)의 『소련에서의 공장과 지배인(Factory and Manager in the USSR)』(1957)은 공장 노동과 관련해서는 이미 고전 중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연구들이다.³¹⁾

2) 노동 일상에 접근하는 ‘방법’: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앞에서 노동 일상에 접근하는 기법이 ‘작은 그물코를 만드는 법’에 해당한다면, 노동 일상에 접근하는 방법이란 그렇게 만들어진 ‘작은 그물코의 그물을 어떻게 던질 것인가’에 해당한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다. 이하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접근’, ‘인류학적 접근’, 그리고 ‘생애사를 통한 접근’ 방법들을 통해

30) Walder, Andrew,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86).

31) Berliner, Joseph S., *Factory and Manager in the USSR*(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57)

서 노동 일상을 연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통한 연구 방법

기존의 연구들이 거대한 제도와 구조의 파악에 집중함으로써 '인간이 상실된 역사'에 대한 연구로 나아간 반면, 일상생활(노동 일상을 포함하여) 연구는 '이름 없는 사람들'로 표현되는 하층 대중의 의식주, 노동과 여가 활동, 질병과 죽음, 가족생활과 이웃 관계, 신앙과 공동체적 관습 등 일상적 삶의 온갖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서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북한 사회의 진정한 이미지는 혁명열사릉이나 애국열사릉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생애 마침표가 찍혀 있는 인민들의 공동묘지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사람' 혹은 '이름 없는 사람'의 일상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을 진솔하게 수용하고 그들의 행위와 생각이 역사적 과정에서 갖는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가 크다. 예를 들면 앞에서 예로 든 노동영웅 길확실이 아니라 그녀의 수기 『천리마작업반장의 수기』에 등장하는 엑스트라 강인복, 강재옥, 리인숙, 김경자의 일상생활이 북한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더욱 더 강렬하게 느끼게 해주며, 국가와 깃발과 슬로건에 감염되지 않은 순수한 북한 사회의 영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³²⁾ 이야기를 좀 더 극화시킨다면 노동영웅의 창조적인 이미지보다는 노동과 관련해 정치적 마녀로 지탄받게 되는 반동분자, 공화국 음해자나 간첩들의 탄생 메커니즘에 시야를 두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32) 길확실, 『천리마작업반장의 수기』, 8, 15, 57, 80쪽.

평범한 개인이나 집단의 일상적 경험을 재구성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상생활 연구는 그 자체로서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공간의 생활세계로 대체된다. 가령 한 마을이나 하나의 작업장, 하나의 공장 등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되거나, 한 가족, 한 개인의 이력, 혹은 축제나 파업과 같은 단 하나의 사건에 국한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특정 집단 혹은 지역 연구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 속하는 모든 개인을 몽땅그려 집단적인 행위자로 만들어내는 위험성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³³⁾

‘아래로부터의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구술 분석 기법으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구술은 문자기록을 독점하는 지배층에 의해 가려지고 침묵되어진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름 없는’ 피지배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한다.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획득한 구술 자료를 토대로 일상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구술 자료는 사료(史料)로서 이용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지 못한 대다수의 서민들이 역사 서술에 참여하여 스스로 말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지향하게 된다. 나아가 민족과 국가가 주체가 되는 중앙 중심적이고 국가사(national history)적 연구에 의해서 가려지는 개인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장점이 있다.³⁴⁾

33) 현상학적 개인주의자들은 주위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닿을 수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슐룸뵐, 위르겐, 『미시사와 거시사』, 62쪽.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행위자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34) 윤택립,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제25집(1993).

북한은 과거의 정치 사회질서를 부정하고 독자적인 집단 정체성을 강조하며 새 체제를 형성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의 일상 연구는 북한 체제의 요구에 의해 단일한 정체성으로 재구성된 주체를 해체함으로써 다중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역사화할 수 있으며, 대문자 담론에 의해 짓눌리고 가려진 소문자, 소수자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³⁵⁾ 결국 북한 노동일상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2)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 방법

인류학(Ethnography)적 접근은 문화에 대한 총체론적 관점을 취한다. 이를 이른바 ‘인류학적 총체’라고 하는데, 인류학적 접근에서는 문화를 통합된 전체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맥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인류학적 접근은 지금까지 문화라고 정의해왔던 일종의 통합된 문화 개념을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로 잘게 분할하고 이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인간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류학적 접근이다. 결국 문화의 총체성이란 곧 인간 삶의 총체성이라는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한다. 물론 이 인류학적 접근은 문화의 절대적인 자율성을 배타적으로 내걸면서 ‘경제와 무관하게 자율성을 지니는 문화’라는 문화주의적 편향성을 경계한다.

한편 인류학적 접근은 개인과 집단의 현실 속에 깊이 천착해서 구조나 체계로 형해화(形骸化)되지 않은 인간과 집단 본연의 모습을 파

35) 이유재·이상록,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서울: 책과함께, 2006), 29쪽.

약할 수 있게 해주며, 인간 개인과 집단의 주관적 측면에서의 자아 형성과 의식, 생활사 등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두꺼운 벽을 관통해 나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유럽 외부의 세계뿐 아니라 자기 역사 안의 낯선 것을 포착해야 한다.³⁶⁾

이는 북한 연구에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³⁷⁾의 극복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른바 유럽적 연구 전통이란 국가를 중심에 놓은 것인데, 이는 분화된 국가성을 아예 경험하지 못했던 ‘전통’사회 연구뿐 아니라 유럽적 경로를 거치지 않은 사회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장 잘 지적하고 있는 연구는 인류학의 거장인 삐에르 클라스트르(P. Clastres)의 『폭력의 고고학』일 것이다.³⁸⁾ 클라스트르는 ‘아만인’과 ‘개화(혹은 계몽)’라는 긴장을 들춰내면서 “국가 없는 사회는 완전한 구속의 사회”³⁹⁾라는 일반론에 대해서 “완전한, 성숙한 사회들로서의 원시 사회들이 국가를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이 국가를 거부하기 때문이고 지배자와 피자배자로 사회적 몸체가 분할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⁴⁰⁾

또한 인류학적 접근은 구조주의적 분석이 갖는 적실성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구조라는 거대한 사회 기계에 찌그러져 있어 ‘부

36) 반 뢰벤, 리하르트, 『역사인류학이란 무엇인가』, 최용찬 옮김(서울: 푸른역사, 2001), 31쪽.

37) 북한연구에서 ‘오리엔탈리즘’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 작업은 없지만, 구갑우는 국제정치학에서 유통되는 문헌들에서 북한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을 읽어낸다. 구갑우, “북한연구의 ‘국제정치’: 오리엔탈리즘 비판,”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서울: 후마니타스, 2007), 247~257쪽.

38) 클라스트르, 삐에르, 『폭력의 고고학』, 변지현 외 옮김(서울: 울력, 2002) 참조.

39) 위의 책, 208쪽.

40) 위의 책, 150쪽.

재(不在)의 존재(存在)로 취급되었던 ‘자그마한’ 행동단위와 ‘자그마한’ 생활공간, 그리고 ‘작은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발견함으로써 주체의 은폐된 목소리와 숨소리가 정당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3) ‘생애사’를 통한 연구 방법

노동자들의 기원(도시 출신 혹은 농촌 출신), 노동 세계 및 생활 세계의 변모를 심층 분석해 북한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무엇을 희망했고 어떠한 경험을 겪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노동 일상 연구의 중요한 실천이다. 이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구술 자료가 그 토대가 될 수 있다.

생애사는 특정한 가족적·계층적·지역적 배경을 가진 한 인간이 노동자가 되는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특정한 경험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개인을 통해 사회와 구조를 바라보는 연구 방식이기도 하다. 생애사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개인의 사적이고 주관적 경험을 드러나게 하고, 그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개인의 주관적 경험은 어떻게 객관적 구조와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시적이면서도 개인과 구조를 연결시키는 접근방법에 입각하고 있으며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한 구술자료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노동자의 형성과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들을 돌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노동자 개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맥락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삶의 경험에 관심을 둬으로써, 노동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된 의식과 문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되었을지도 모르는 비폭력적·소극적 저항의 형태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의 서술자가 됨으로써, 객관적 구조에 의해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로서의 노동자가 아니라, 구조적 제한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서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생애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 개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의식과 삶의 형태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생애사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었고, 그들은 어떠한 삶의 경험을 가졌으며, 그것에 대해 노동자 자신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통시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태어난 시기부터 현재까지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람이 노동자였던 시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한 노동자의 생애사는 특정한 가족적·계층적·지역적 배경을 가진 한 남자 또는 한 여자가 노동자가 되는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특정한 경험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고, 또한 특정한 계기를 통해 노동자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위치까지 오는 경로에 대한 이야기이다. 생애사는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social positioning)를 통시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규명해가는 작업인 것이다. 생애사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개인의 주관적 경험은 어떻게 객관적 구조와 상호 연관되어있는지를 보여준다.

비록 노동자로서의 생애사는 아니지만 성혜량의 자전적 저서인 『등나무집』은 개인을 스쳐가는 북한의 근현대사를 다소간 주관적이고 사적인 입장에서 섬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⁴¹⁾ 그리고 김석형이 구술하고 이향규가 정리한 『나는 조선로동당원이요!』도 한 마

을(평북 박천군 덕안면)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를 외곽에서 구성하는 정치사를 덩덤하게 구술함으로써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⁴²⁾ 여기서 이항규는 개인사를 일종의 한국사의 축소(microcosm)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에 녹아 있는 역사라는 의미일 것이다.

5. 북한 노동일상 연구의 영역 및 주제들

여기서는 북한의 노동 일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과 주제들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다양한 학제 간 연구 성과에 힘입어 북한 연구, 특히 북한 노동일상 연구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영역 및 주제들을 모색한다. 앞에서 언급한 은유를 빌어서 설명하자면, ‘작은 그물코의 그물’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그 그물을 던져야 한다. 북한 노동일상 연구의 영역 및 주제들은 바로 ‘그물을 어디에다 던져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하는 주체인 노동자 개인의 삶의 영역을 연구 대상이 되는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북한의 노동 일상 연구는 크게 노동자의 노동세계(작업장)와 작업장 이외의 생활세계(주거공간과 여가 공간)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 세계는 공간적으로는 작업장이 될 것이며, 또한 개인 속의 노동세계, 즉 노동 정체성이나 의식도 마찬가지로 노동 세계의 공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생활세계는 노동세계를 제외한 모든 시간 및 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개인에 체화된 생활 세계와 의식도 분석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41) 성혜량, 『등나무집』(서울: 지식나라, 2000).

42) 김석형 구술, 『나는 조선로동당원이요!』, 이항규 녹취 및 정리(서울: 선인, 2001).

1)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 일상 연구

노동일상은 노동이 실행되는 현장(field)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현장’이란 사회적으로 생산된 사회 구성물이면서도 미시적 행위들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20세기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생산된 사회구성물이다. 여기에는 공장 및 작업장, 기숙사, 작업장 내 제반 시설들이 속한다. 작업장이라는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 일상을 분석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하위 연구 주제들이 구성될 수 있다.

우선 작업 시간을 둘러싼 갈등과 시간관리 및 통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연구가 있을 수 있겠다. 휴식 시간은 노동자들에게는 즐거운 일이겠으나 지배인에게는 무익한 ‘지출’이다. 따라서 휴식시간은 엄격한 시간규정을 적용해 작업과 분리시켜야 한다. 작업시간 도중에, 그리고 작업장에서는 휴식시간이 억제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공장 생산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상 활동 전체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⁴³⁾

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억압적인 공장 규율이 존재하는데도 권력이 원하는 작업 시간의 표준과 노동 내용은 현실의 작업장에서 거의 정착되지 못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은 대개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극적인 방식을 취하지도 않기에 은폐되어 있다. 일종의 노동 시간의 재전유(re-appropriation)인 셈이다.

43) 뤼트케, 알프, “일상생활의 역사서술: 사사로운 것과 정치적인 것,” 『문화와 이데올로기와 정치』(청계연구소, 1987), 76쪽.

지겔바움(L. H. Siegelbaum)이 이를 잘 분석하고 있는데, 그는 1930년대 소련의 스타하노프 운동을 분석하면서 ‘생산성의 정치(the politics of productivity)’라는 개념을 통해서 스타하노프 운동이 노동 현장에서 굴절되는 상황을 분석했다. 생산성의 정치라는 것은 작업 현장에서 산출을 증가시키려는 경영 간부의 노력과 노동 시간에 투여하는 노동량을 최소화하려는 노동자 간의 갈등과 알력을 묘사하는 개념이다.⁴⁴⁾

노동 시간과 노동 시간 사이에 주어지는 휴식 시간도 노동 일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이다. 알프 뢰트케(A. Lüdtke)가 언급했듯이 관리자(지배인)에게는 휴식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공식적인 작업시간으로부터 분리되는 작업장에서의 일정 정도의 사적인 일상이 벌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휴식 시간은 노동 시간에 강제되었던 노동에 대한 태도(불만과 입장)를 표출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노동을 지출함으로써 생존하는 노동자들에게 작업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존하는 일(surviving)’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장과 배급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행태 또한 일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배급과 일상 간의 관계, 좀 더 질 좋은 배급을 받기 위한 승진 및 승급에 대한 태도, 임금(생활비)에 대한 태도 등이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작업 시간에 강제되는 노동 강도에 대한 인내와 용인, 저항(voice)을 포기하려는 의지 등도 중요하게 개입할 수 있다.

작업장 내의 기숙사라는 공간 혹은 제도는 노동자의 일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장 기숙사의 형태와 구조가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기숙사의

44) Siegelbaum, L. H., *Stakhanovism and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in the USSR, 1935 ~ 1941*, p.7.

방과 잠자리, 시설, 전등, 난방, 환풍, 세면장과 화장실, 기숙사 식당 등이 미시적인 연구 대상이 된다. 그리고 기숙사의 규율(외출, 외박, 통제, 사감)과 기숙사 생활과 문화(기숙사 동료와의 관계, 자치 조직, 문화 생활 등)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숙사에서의 노동자 행태에 대한 공장 권력의 통제,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일상적 저항과 순응, 그리고 양자 간에 벌어지는 ‘기숙사 내의 정치(politics)’도 노동자 일상에 관한 중요한 연구 영역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공장 기업소와 기관 내부에서 실시되는 공장 내 정치활동(가령, 각종 소조 활동, 기업소 생활 총화 등)과 비노동 활동(가령 공장 내의 합창, 연주, 스포츠 등의 활동), 그리고 공장 차원에서 진행되는 봉사 활동, 지원 활동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상들도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일상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현장’(공장, 작업장, 기숙사) 내의 노동자 일상(특히 북한)은 거의 연구된 것이 드물거나 없다. 따라서 그 대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유사 영역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일제 시기의 공장 체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참고할 만하다. 강이수는 “공장체제와 노동규율”이라는 논문에서 일제 식민지 시기의 근대적 노동자라는 주체 형성을 작업장인 공장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 일상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의미 있는 전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⁴⁵⁾

45) 강이수, “공장체제와 노동규율,”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서울: 문화과학사, 1997).

2) 개별 공장에서의 노동 일상 연구

개별 공장의 노동 일상을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즉, 하나의 공장을 선정해 그 공장 내의 노동 일상 세계를 접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공장인 황해제철소, 김책제철소, 2·8비날론공장, 홍남질소공장 등의 노동 일상세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의 속성상 자료의 한계가 여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은 픽션 자료를 통해 일상들이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난관은 아닐 수 있다.

개별 공장의 노동 일상 연구로서 개별 공장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 일상을 연구할 수 있다. 가령 황해제철소 용해공의 노동 일상과 공장 생활, 나아가 용광로에 대해 갖는 그의 의식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2·8비날론공장의 신규의 미숙련공이 숙련공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김책제철소의 노동자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도 일상 연구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닐까 한다.

개별 공장의 노동 일상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러시아의 인쇄소⁴⁶⁾를 연구한 남영호의 “러시아 공장 작업장에서의 시간과 공간, 신체” (2006)가 있다.⁴⁷⁾ 남영호는 이 논문에서 러시아 인쇄소의 인쇄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규율을 형성해가고 있는지를 푸코(M. Foucault)의 규율 권력을 통해 설명하고 그러한 규율이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이해,

46) 이 인쇄소는 1917년 혁명 이전부터 존재했는데 소련 시기에는 신문, 잡지, 일반 서적, 인쇄물들을 생산하는 인쇄공장이다.

47) 남영호, “러시아 공장 작업장에서의 시간과 공간, 신체,” 『비교문화연구』, 제12집 1호(2006).

재해석, 소비, 이용되는가를 흥미진진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레닌 그라드 금속공장의 금속 노동자들의 노동규율을 연구한 김남섭의 “금속노동자: 사회주의 전위?”도 소련의 산업화시기에 금속공장 노동자들의 노동 규율 상태를 일상적인 토대 위에서 분석하고 있다.⁴⁸⁾

개별 공장의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는 앞서서도 언급한 코트킨(S. Kotkin)의 연구이다. 『마그네틱 마운틴』에서 그는 우랄에 위치한 마그니토고르스크 강철공장을 사례 연구했다.⁴⁹⁾ 방대한 분량의 자료에는 수기와 메모도 망라되어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지만, 공장이 건설되는 시기의 노동자들의 배급 상태, 잠자리(버럭 및 텐트), 노동자와 간부들의 숙소 위치의 차별, 신규 노동자들의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작이다.

또 하나의 대작은 호프만(D. Hoffmann)의 연구이다. 『페전트 메트로폴리스』에서 그는 1920~1941년 모스크바 공장을 사례 연구했다.⁵⁰⁾ 호프만의 분석은 꽤 흥미로운데 그것은 제목에서 이미 나타난다. 모스크바는 사실상 농민들이 장악한 도시(peasant metropolis)라는 의미이다. 농촌 출신 노동자들이 모스크바 공장에 노동자로 진입하면서 ‘아르텔(Artel)’ 같은 농촌공동체 문화를 공장에 이식시키는 과정의 묘사는 이 연구의 백미이다. 사실상 농촌 출신 노동자들이 도시 공장의 노동규율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도시가 농촌 문화에 적응해나가는 것을 공장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48) 김남섭, “금속노동자 — 사회주의 전위?: 소련 산업화 시기 레닌그라드 금속 노동자들의 노동규율 1929~1934,” 『서양사론』, 제84호.

49) Kotkin, S.,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50) Hoffmann, D., *Peasant Metropolis: Social Identities in Moscow 1920~1941*(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3) 지역 및 공장 도시의 일상 연구

개별 공장을 선정해 접근할 수 있지만 개별 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의 노동 일상세계를 접근할 수도 있다. 가령 홍남, 청진, 남포, 신의주, 평양 등 지역의 노동 일상세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중공업과 대공장 등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지역과의 연관하에서 노동자들의 일상을 검토하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 경우 되도록 공장 도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반(半)농 반(半)도의 지역을 선정해 연구할 수도 있다.

공장 도시의 일상 연구와 병행해서 공장 도시의 대공장과 반농반도나 농촌 지역에 위치한 지방 공장의 노동 일상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평양, 남포, 청진, 함흥과 같은 공장 대도시의 노동 일상과 주변부 지역의 소규모 지방공장의 노동 일상은 분명히 커다란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주변부 지역 그 자체는 이 지역의 인민들에 의해 ‘중양’에 대비되는 ‘지방’으로 창조되며 자신들의 ‘지방’을 가지고 중양 혹은 국가와 전략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노동 일상의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다.⁵¹⁾

자료와 다양한 접근 경로가 존재해 주로 북한의 대공장에 대한 내러티브와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지만, 대공장의 큰 소리에 파묻힌 소규모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일상을 통해서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들의 일상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춰낼 수 있다. 나아가 거대 담론, 거대 구조, 권력 의지와는 다른, 혹은 이로부터 소외된 영역을 발견함으로써 거대한 담론, 구조, 권력에 균열을 가하고 새로운

51) 김광억, “중국연구를 위한 인류학적 페러다임 시론,” 30쪽. 가령 역사적 경험에 대한 기억의 장치가 지역사회의 특별한 문화행사로 발명되는 사례가 있다.

총체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장 도시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은 ‘근대성(modernity)’과 연결된 이미지이다. 가령 호프만은 1933년에 모스크바 공장에 취업하러 농촌에서 올라온 당시 16살 소녀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공장 도시가 갖는 매력을 전언하고 있다. 나데즈다 안드레브나(N. Andreevna)는 다른 대부분의 농촌 출신과 마찬가지로 “모스크바에 올라왔을 때 나를 둘러싼 진기한 풍경에 압도당했다. 도시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을 것 같았고, 사실상 나의 노동의 성격과 사회관계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라고 고백한다.⁵²⁾

또한 이러한 공장 도시의 근대적인 이미지가 당시 노동자들을 어떻게 흡인했는지, 노동자들은 도시공간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표상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깊다. 산업도시는 농촌 공동체와는 다른 이미지와 경관을 제공한다. 이것은 산업화의 또 다른 측면인 도시성의 경험으로 노동자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공간 감각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공장 도시 이미지가 노동자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4) 노동자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공업적 생산과 노동 패턴은 노동자들에게 산업화 이전의 행위 패턴과는 전혀 다른 행위를 요구한다.⁵³⁾ 농업적인 시간 개념과 신체에 익숙한 농촌 출신 노동자들은 산업화 시기 급속하게 산업노동자로 흡입되면서 산업적 시간 개념과 산업적 신체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익숙

52) Hoffmann, David, *Peasant Metropolis*, p.127.

53) Andrlle, Vladimir, *Workers in Stalin's Russia*(S. T. Martin's Press, 1988), p.112.

하지 못한 공장노동의 일상적인 패러다임이나 도시생활의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신규 노동자들이 경험했던 문제들은 모든 산업화 사회에서 공통적인 것이다.

익숙하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노동과 새로운 환경에서의 불안감, 낮은 기계, 낮은 용광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두려움, 그들의 기존의 총체적인 습관과 행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 좀 더 나은 생활조건에 대한 열망, 언제든지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 게으름 및 수일간의 결근 이후 결근에 대해 변명하거나 처벌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공장을 찾고자 하는 오래된 습관들이 그것이다.

산업화와 관련된 시기에 형성된 북한 노동자들의 기원, 노동 세계 및 생활 세계의 변모를 심층 분석해 북한의 산업 노동자들이 형성되는 과정과 삶의 모습, 희망, 좌절 등을 고찰해보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산업화 과정이란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항상 이득을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으며, 아울러 전(前)산업적인 행위를 통해 산업화의 역동성에 맞서 저항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노동 일상 연구를 통해 비로소 다가온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생애사 연구의 전통적인 주제가 되어왔다.

사실 일상 연구가 아니더라도 북한 연구에서는 북한 산업화 시기의 노동자 형성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공백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구직 경로와 지역적 이동, 노동자 가족의 변화, 질병과 죽음, 출근과 퇴근, 결혼과 성, 농촌 출신 노동자들의 친목단체 등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 형성 과정에서 그것은 개인 생애에서 결정적인 단절로 경험될 것인데, 노동자라는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노동경험, 공장이라는 새로운 제도 속에서의 위치, 도시라는 낮은 환경 등 어느 하나

도 자신의 고향 공동체와는 연속성을 갖는 이미지나 경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애사적 ‘단절’이 농촌으로부터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가능했는지, 아니면 도시가 제공하는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가능했는지도 연구 대상이 된다.

또한 ‘산업화 = 도시 = 근대성’⁵⁴⁾이라는 도식이 산업화 과정을 겪은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북한에서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되리라 생각된다. 공장 도시의 휘황찬란한 밤 경관, 도시인들의 교양 있는 말씨, 농촌에서 볼 수 없었던 말쑥하고 고급스런 의복, 액세서리, 개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자유로움 등이 대부분의 노동자가 ‘근대성’으로서 처음 접하게 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산업화라는 특정 시기에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는 곧바로 ‘근대성’을 부여하고 ‘낙후성’을 폐기시키는 캐릭터로 묘사가 되는데 이는 그 노동자의 평생 동안 각인되는 효과를 가진다. 스탈린을 ‘자신을 근대로 이끌어낸 지도자’라고 느끼듯이 스탈린과 근대, 김일성과 근대는 노동자들에게 동의어가 되기도 한다.

5) 노동자들의 일상생활과 문화

북한의 노동 일상과 관련된 또 중요한 영역은 문화생활 그리고 노동 이외의 일상생활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노동자들은 노동이 없는(혹은 끝난)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가령 퇴근 이후의 저녁 시간과 휴일에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54) 산업화와 도시를 근대성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산업화 이후 최근까지도 모든 산업사회에서 근대성(modernity)은 서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낙후된 것을 제거하는 ‘좋은 것’, ‘발전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은 음주, 오락, 산책 등을 분석함으로써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공식 문헌이나 픽션이나 잡지를 읽음으로써 영웅적 노동 개념과 애국주의에 감염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하지만, 실제로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 세계와 그들이 향유하는 하위 문화는 매우 낮설다. 사실 이는 노동자의 또 다른 아이덴티티(identity)에 관한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상을 조직해왔으며 그 속에서 어떤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혁명 과정에서 억압되거나 금기시된 문화들이 여전히 노동자들의 일상 문화로 전유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인데, 특히 이러한 경향은 특정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역공동체는 국가와 사회의 타협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들이 아버지의 아버지 시대를 겹겹이 거쳐서 장기 지속적으로 습득한 많은 문화적 전통적인 것들이 부분적으로 혁명 국가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국가가 이 모든 비물질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음주와 관계 문화, 전통적인 축제나 의례(유교적 의례인 제사나 축일, 각종 문화적 코드를 재생산하는 다양한 수준의 문화제 등), 공동체 내부 관계 양식 등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문화적 아이덴티티와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주거와 공간도 중요한 주제이다. 사실상 주거는 노동의 공간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장이다. 노동자들이 바라는 주거상은 무엇이고 주체적으로 문화 공간을 어떻게 구성했으며, 또한 국가 혹은 공장 기업소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주거공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 평양과 같은 대도시의 노동자 살림구역의 아파트는 아마도 농촌 지역 출신 노동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

을 것이다. 또한 근대적인 형태로 건설된 노동자의 주거 공간(아파트와 시멘트와 철골 구조물들)이 발산하는 매력이야말로 농촌의 젊은이들을 도시로 흡인하는 강력한 유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규모 공장이 제공하는 주거시설은 여전히 ‘매력적인 근대’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6) 노동 일상과 젠더링

노동 일상을 연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의 하나는 젠더(gender)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성적인 담론이 우세한 산업화, 도시화, 공식 영역 등은 여성의 이야기(herstory)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종래의 노동 연구도 남성노동자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북한의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이 50% 이상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 일상의 주체 또한 여성이라는 사실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근육에 의해 상징된 철(鐵)의 산업화, 남성적 힘으로 상징되는 들끓는 용광로 등은 여성 노동자의 일상을 관심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노동 일상의 젠더링(Gendering)은 ‘아래로부터’ 그리고 ‘일상 생활로부터의’ 접근을 통해 가능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그 역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온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 노동 일상 연구에 동원되는 인터뷰, 심층면접, 구술 기법 등은 서사에서 배제된 여성의 일상과 삶을 복원시키는 대단히 훌륭한 기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 일상 연구는 기법과 방법 자체로부터 이미 연구에 있어서의 일종의 ‘양성 평등적인 기법’에 유리한 지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장 및 작업장에서의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지만 존재한다. 류한수는 “여성노동자인가 노동하는 바바⁵⁵⁾인가?”라는 연구를 통해서 러시아 내전 시기에 페트로그라드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서 연구한 바 있다.⁵⁶⁾

6. 결론

북한 연구에서 일상 연구는 매우 낮은 영역이다.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된 북한 연구에서의 경향들을 검토해보면, ‘노동’이라는 주제 영역도 매우 드물게 연구되어왔고, 그나마도 연구의 에너지들은 노동을 통해 인민들을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동하는 인간’, 즉 호모 소비에트쿠스(Homo Sovietcus)를 만들려고 했던 국가의 정책과 욕망을 연구하는 데 대부분 소진되어왔다. 그렇게 분석된 ‘노동’과 ‘노동자’의 이미지는 마치 예수의 사진처럼 머리 뒤로 아우라(aura)가 환하게 빛나는 모습의 영웅적 이미지였다.

노동 일상 연구는 이러한 아우라로부터 소외된 일상적인 노동에, 그리고 그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평범한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들로 하여금 발언하게 하고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아우라에 의해 은폐되었던 노동과 노동자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다. 이로써 호모 소비에트쿠스라는 이상형은 해체되고 ‘소비에트쿠스’라

55) 러시아어 바바(баба)는 여성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다.

56) 대표적인 연구는 소련 시기 공장 연구로서 페트로그라드 지역 공장의 연구를 수행한 류한수의 연구이다. 류한수, “여성노동자인가 노동하는 바바인가?: 러시아 내전기(1918~1921년) 페트로그라드 지역 공장의 남성우월주의와 여성노동자,” 『서양사론』, 제85호(2005).

는 아우라가 제거됨으로써 ‘호모’라는 진정한 인간이 재구성된다.

일상은 매우 질긴 것이다. 사회주의적 문화 혁명에도 파괴되지 않으며 사회주의 각국의 ‘현지 불세비키’들이 결코 부수지 못했던 요새이기도 했다. 그래서 일상 연구는 비판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성격과 효과는 굳이 이데올로기를 동원할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힘주어 강조할 필요도 없이 일상을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획득된다.

세상사 모두에 항상 처음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므로, 북한 노동 일상도 이제 북한 연구, 사회과학 연구, 학술적 연구의 정당한 영역이 되어갈 것이다. 아직은 초기이므로 이후에는 더욱 풍부하고 정치한 연구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로 인해 북한 노동 일상 연구는 당분간 발전하는 광경만 보게 될 것 같다. 그리하여 비록 이 글의 앞부분에서 ‘새로운 세계를 포착하기’라는 말로 묘사했지만, 북한 노동 일상세계라는 새로운 세계는 곧 익숙해져서 북한 사회의 다양하고도 입체적인 모습으로 재구성되어 나타날 것이다.

■ 접수: 10월 28일 / ■ 채택: 12월 4일

참고문헌

- 강이수, “공장체제와 노동규율,”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서울: 문화과학사, 1997).
- 공제욱·정근식,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서울: 문화과학사, 2006).
- 구갑우, “북한연구의 ‘국제정치’: 오리엔탈리즘 비판,”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 반도』(서울: 후마니타스, 2007).
- 길확실, 『친리마작업반장의 수기』(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1).
- 김광여, “중국연구를 위한 인류학적 패러다임 시론,” 『국제지역연구』, 11권 3호(2002).
- 김남섭, “금속노동자—사회주의 전위?: 소련 산업화 시기 레닌그라드 금속 노동자들의 노동규율 1929~1934,” 『서양사론』, 제84호.
- 김석형 구술, 『나는 조선로동당원이요!』, 이향규 녹취 및 정리(서울: 선인, 2001).
-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그레마스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 연구』(서울: 고려대출판부, 2002).
- 김일성, “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4기 제2차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61년 12월 1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 _____,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김일성저작집(제2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진균·정근식,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서울: 문화과학사, 1997).
- 클라스트르, 빼에르, 『폭력의 고고학』, 변지현 외 옮김(서울: 울력, 2002).
- 남영호, “러시아 공장 작업장에서의 시간과 공간, 신체,” 『비교문화연구』, 제12집 1호(2006).
- 라오웨이, 『저 낮은 중국』, 이향중 옮김(서울: 이가서, 2004).
- 류한수, “여성노동자인가 노동하는 바바인가?: 러시아 내전기(1918~1921년) 페트로그라드 지역 공장의 남성우월주의와 여성노동자,” 『서양사론』, 제85호(2005).
- 뤼트케, 알프, “일상생활의 역사서술: 사사로운 것과 정치적인 것,” 『문화와 이 데올로기와 정치』(청계연구소, 1987).
- _____, 『일상사란 무엇인가』(서울: 청년사, 2002).
- 르페브르, 앙리,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재환 외 엮음, 『일상생활의 사회학』

-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4).
- 문옥표, “문화연구 방법론 모색: 구술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구술사와 우리 시대의 인류학』, 문화인류학회 제6차 워크숍 발표논문집(1999).
- 반 뢰덴, 리하르트, 『역사인류학이란 무엇인가』, 최용찬 옮김(서울: 푸른역사, 2001).
- 쁘로쁘, 블라지미르, 『러시아민담연구』, 이종진 옮김(서울: 한국외국어대출판부, 2005).
- 사회과학출판사 엮음,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성혜랑, 『등나무집』(서울: 지식나라, 2000).
-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제25집(1993).
- 이유재·이상록,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서울: 책과함께, 2006).
- 진광생·최성만 옮김, 『뇌봉』(서울: 실천문학사, 1997).
- 차문석, “레이핑, 김철실: 마오쩌둥, 김일성 체제가 만들어낸 영웅들,” 『대중독재의 영웅만들기』(서울: 휴머니스트, 2005).
- _____, “북한의 노동 영웅에 대한 연구,” 『북한의 사회』(서울: 경인문화사, 2006).
- _____, 『반노동의 유토피아』(서울: 박종철출판사, 2001).
- 최완규·노귀남, “북한 주민의 사적 욕망,”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2008).
- 하르투니언, 해리, 『역사의 요동』(서울: 휴머니스트, 2006).
- Andrle, Vladimir, *Workers in Stalin's Russia*(S. T. Martin's Press, 1988).
- Berliner, Joseph S., *Factory and Manager in the USSR*(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57).
- Halbwachs, Maurice, *The Collective Memory*(New York: Harper Books, 1980).
- Hoffmann, David, *Peasant Metropolis: Social Identities in Moscow 1920 ~1941*(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 Kotkin, Stephen,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Meyer, Alfred G., “Cultural Revolution,”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XVI, No.1&2(Spring/Summer, 1983).
- Portelli, Alessandro, *The Death of Luigi Trastulli and Other Stories*(New York: State

-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 Siegelbaum, Lewis H., *Stakhanovism and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in the USSR, 1935~1941*(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Sorenson, Jay B., *The Life and Death of Soviet Trade Unionism 1917~1928*(New York: Atherton Press, 1969).
- Thompson, Paul,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Walder, Andrew,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86).
- Wang, Mingming, *Flowers of the State, Gardens of the People*(Ph.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1992).

The World of ‘Everyday Life of Labor’ in North Korea

Cha, Moon-Seok(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The everyday life of labor in North Korea is a ‘new world’. Here, the newness signifies the everyday life of labor that always existed but never been captured by researchers. Through research on the everyday life of labor in North Korea, the so-called ‘North Korean phenomena’, which have been taken as a matter of course, will be revised or further elaborated.

This paper focuses on how workers as humans managed and lived their everyday life of labor. Workers are understood as subjective actors who cannot be reduced to a part of the production process and who, in particular social settings, organized and created their own ‘labor and the everyday life’.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also searches for new research methods in analyzing labor and the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The everyday life is tenacious. Despite socialist cultural revolutions,

it could not be destroyed. The everyday life was a fortress that could not be smashed by various bolsheviks on the scene. The research on the everyday life of labor in North Korea will contribute to reconstructing North Korean society in diverse and multidimensional ways.

Keywords: Everyday life of labor, The concept of work, Work culture, Factory city, Little man